

정세균 총리 주도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구체화 되나

문대통령, 제도화 검토 지지
코로나 피해 업체 등 대상
28일 목요일대화서 본격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비량 끝으로 몰리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는 정 총리가 주도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자"는 화두를 공개적으로 던진 바 있다. 또

손실보상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기획재정부를 향해 정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타한데 이어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법제화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전문학적인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 총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만 실제 보상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코로나 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보다 적극적으로 민생 해법을 제시하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정 총리는 오는 28일 목요일대화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윤호덕 기재위원장과 경제학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연합회·외식업중앙회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목요일대화는 정 총리가 지난해 취임 후 스웨덴의 '목요일클럽'을 본따 만든 소통의 자리다. 정 총리를 상징하는 자리에서 당정 회의를 여는 것으로 여권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를 '정세균 브랜드'화해 나선 것이라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호남 지지 기반이 겹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측은 '법제화는 당의 몫'이라며 정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영상으로 진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를 견제하는 분위기다.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는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현대기금법 등 '코로나 3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4일에도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

회현대기금법으로 이어지는 '코로나3법'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11월까지의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며 "국민

이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이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방역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지지율 43%...8주만에 40%대 회복

리얼미터 조사...5.1%p 상승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1위 탈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8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동반상승해 정당 지지율 1위를 회복했으나 4월 재보선의 승부처인 서울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에 뒤졌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5.1%

포인트 오른 43.0%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4주(43.8%) 이후 8주 만에 40%대로 올라선 것이라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중간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3.6%였다.

리얼미터 측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약재에 정면 돌파하려는 모습이 반등 요인으로 꼽히고, 이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부정 평가는 53.2%로 4.4%포인트 내렸다. '모름·무응답'은 3.7%로 0.7%포인트 감소했다.

지지도 상승폭은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라가 11.2%포인트로 가장 컸다. 서울은 5.0%포인트 상승하며 부정평가와의 격차를 좁혔다. 이념성향별

는 이례적으로 보수층의 긍정평가가 7.7%포인트 올랐다. 중도층에서도 1.7%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1.9%포인트 오른 32.8%를 기록하며 국민의힘을 8주만에 앞질렀다. 국민의힘은 3.3%포인트 내린 28.6%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논의가 부진한 것이 약재로 작용한 것으로 리얼미터는 해석했다.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27.2%, 국민의힘은 31.4%를 각각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이 31.3%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23.7%를 기록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또 성 비위 사건...진보진영 충격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어
정의당까지 도덕성 큰 상처

인권과 양성평등을 강조해왔던 민주·진보 진영에서 또다시 성 비위 사건이 벌어져 충격

을 주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더불어민주당의 유명 정치인들에 이어 제도권 진보를 대표하는 정의당의 김중철 대표까지 25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전격 사퇴했다.

초대형 성 비위 사건은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이 일로 안 전 지사는 '권력형 성범죄자'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고, 민주당 역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를 잃었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4월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성 공무원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과 12월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의 기각으로 구속은 면했다. 지난해 7월에는 시민사회 운동의 상징이자

유력 대권주자였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보았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 밖에도 정봉주 전 의원 등이 2018년 성추행 의혹에 휘말려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의 영인인재 2호이던 원종진 씨가 옛 여자친구의 미투 폭로로 당을 떠났다.

이런 가운데 여야서 성비위 문제가 잇따를 때마다 정의당은 동성애까지 포용하는 젠더의식을 앞세워 기성정당을 비판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그런 정의당에서조차 남성의 우월적, 가부장적 사고에서 기반한 성추행 사건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 전체가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김 전 대표가 70년대생으로, 사실상 1세대인 '노회찬-심상정'의 뒤를 이어갈 차기주자란 점에서 정의당은 상당한 타격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기 부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수습에 나선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선후보 지지율 이재명 26.2%...1위 독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윤석열 14.6%·이낙연 14.5%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를 벗어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

는 26.2%로, 윤석열 검찰총장(14.6%)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4.5%)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뒤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4.6%, 오세훈 전 서울시장 3.0%,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4%, 심상정 정의당 의원 1.6%, 원희룡 제주지사 1.0%,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0.9% 순이었다.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2.6%였다.

지난 12월 정례조사 지지율과 비교해 이 지사(23.4%)는 2.8%포인트 상승했고 윤 총장

(15.0%)은 0.4%포인트, 이 대표(16.8%)는 2.3%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이 지사는 인천·경기에서 31.0%, 윤 총장은 강원·제주 20.8%, 대구·경북 18.3%, 이 대표는 광주·전라에서 33.0%로 상대 후보들에 비해 높은 지지를 받았다. 호남에서 이 지사 지지율은 31.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무선(79.3%)·유선(20.7%)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를 향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6
		성경연구학과(Th.M.)	2
		신학과(Ph.D.)	3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3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3
		신학과(Th.M.)	4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3
		상담심리치료학과(M.A.)	8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6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5
		평생교육학과(M.Ed.)	8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17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0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1. 18(월) ~ 27(수)
- 전형일: 2021. 1. 29(금) 오후 3시

믿음이 대학·민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